

마음 다루기 미지를 향한 열림

행복의 순간에 행복을 아는 자는 없다

| 진 클라인 | 유래현 옮김 |

‘나’라는 개념 없이 이루어지는 일과 예술, 사랑, 통찰에 대해 말합니다(편집자 주).



만약 내가 근본적으로 이미 자유롭다면, 나는 왜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단 한 가지의 장애물은 바로 당신이 독립성을 가진 존재라는 당신 자신의 신념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장애물입니다. 당신은 그 신념에 집착합니다. 그것은 사회, 교육, 경험, 신념들, 간접적인 정보와 모든 종류의 독서에 의해 만들어진 어떤 개체성에 속해 있습니다. 당신은 그 가상의 ‘나’라는 것에 자신을 동일시해왔고 이런 관점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관점을 통해 당신은 주변을 보고 접촉합니다. 개체성 역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대상이기 때문에, 당신은 대상-대상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바로 가장 큰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통찰이 당신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알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두뇌는 당신 자신을 어떤 누군가로 생각하는 패턴에 맞춰 작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갑자기 붕괴되면 당신의 모든 에너지가 재구성되고 존재의 변형이 옵니다. 오래된 반사작용이 깊이 뿌리박혀 있으므로 간혹 다시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당신은 이제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 당신을 부분 속에 가둬놓을까? 당신은 전체이고, 보편입니다.

자신을 어떤 누군가로 생각하는 패턴에 맞춰 작동해 왔음을 아는 것, 이 통찰이 깨달음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예감일까요?

이 통찰이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마음을 해방시켜 줍니다. 이것은 당신의 진짜 본성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음은 자주 그 통찰을 다시 불러낼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공간과 시간에서 하나의 작용점,

경험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통찰 자체는 지속적입니다.

‘내’가 개체성이 아니라는 통찰은 어두운 방의 한 줄기 빛 같은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빛이 거기 있어도 당신은 여전히 어두운 방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이 빛에 투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빛의 근원으로 당신을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러면 갑작스레 당신이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완전히 빛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제 경험은 그랬습니다.

마음은 대상에 동일시되어 있고, 그 상태는 지배적입니다. 단순히 열려 있는 것 말고 그 집착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뭔가 없을까요?

자연스러운 상태는 ‘아는 것 없고, 결론내리지 않는’ 비존재입니다. 얕이 있는 곳에 존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본성은 ‘모름’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당신이 아닙니다. 이 ‘당신이 아닌 것’들이 완전히 없을 때 거기 ‘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있음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의 있음입니다. 열려 있으려고 애써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나는 열려 있어야 해’라고 말하면 하나의 존재 상태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는 명상을 할 거야’라고 하면 그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명상입니다. 당신이 소위 명상이나 열려있음의 상태로 들어간다면 당신은 마구간에 있는 당나귀와도 같은 것입니다.

지성intelligence이란 무엇인가요?

지성은 자발적 행위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나라는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정신적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당신은 지성을 향해 열립니다. 지성은 당신 안에 있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더 지성적이라거나 덜 지성적인 사람 같은 것은 없는 건가요?

당신이 지성적일 때 그 지성에 양이나 질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적합한 행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적합한 행위란, 상황이 필요한 것을 말하게 하는 것이지, 당신이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장면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으면서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 그 상황이 말한 것에 대해 분명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고에 따라다니는 어떤 계획 없이도 자연스럽게 행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발성은 분별하는 마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충동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충동은 분별하는 마음과 관련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행동과 반응의 낡은 패턴에 기초해 있습니다. 자발적이고 지능적인 행위는 개념화하지 않은 순수한 지각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다양한 전통과 철학적 체계의 가르침들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양적 기준에 맞춰 살기를 권고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도 지나침이 없는 것, 중용 등등. 또는 어떤 식이요법이나 생활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리학적 수준에서 볼 때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입니다. 신체-정신의 작용과 감각에 대해 배우게 되는 순간 섭취한 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피부를 통해서도 섭취되는 그것들이 당신이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침에 몸이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밤에 자러가기 전과 오후에 낮잠을 자고 일어난 후의 몸이 어떻게 느껴지는지가 흥미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사냥개의 집중력이 아니라 의도 없는 이완된 관찰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에서 자유로워진 관찰을 통해 당신은 지성적으로 행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을 느끼는 곳에는 어떤 요소를 더하고, 지나침을 느끼는 곳에는 어떤 것을 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기체 몸에 대해 알게 되면 거기서 확장된 빛과 에너지 몸이 자유로워집니다. 어떤 체계도 이런 식으로 당신 자신에 대해 알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반응에서 자유로운 관찰,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만이 그렇게 해 줍니다.

이 모든 것이 관찰하는 수준입니다. 열린 상태에서 단순히 관찰하세요, 그러면 바른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삶에서 섹스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 자신이 사랑일 때 상대에게서 보게 되는 것은 단지 사랑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획할 수 없는 어떤 순간이 와서 그때 이 하나됨을 몸의 느낌 수준에서 표현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일탈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성관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됨의 순간은 눈빛 하나, 손길 한 번, 하나의 향기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일탈이라면 즐거움의 순간, 어떤 탈출구를 의미하지, 하나되는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는 말이군요?

기쁨을 추구하면 고통도 함께 합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사랑을 나눈다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일탈인가요?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견고한 하나됨을 만든 것이라면 말이죠. 이상적으로 말해 어린이는 하나됨의 결과입니다. 거기에는 사랑하는 자, 사랑 받는 자 없이 오직 사랑만 있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며 사랑하는 자도, 사랑받는 자도 없다면, 궁극적인 관점에서 장기적 관계가 없을 때조차도 하나됨의 영원한 순간은 가능하겠군요?

완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즐기려고 한다거나, 아이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는 곳에 하나됨은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원하는 이원론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긴장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가 잘 안 생겨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사랑이 완전히 표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전통에서는 아이를 갖기 위해서만 사랑을 나누어야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을 드러내려는 순간이라면 그것은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행동은 올바른 행동입니다.

자연스러운 상태는 '아는 것 없고, 결론내리지 않는' 비존재입니다.
앞이 있는 곳에 존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본성은 '모름'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당신이 아닙니다.

예술은 어떤 때 진정한 예술입니까? 목적이나 원인을 갖고 있지 않을 때인가요?

먼저 예술이 뭔지 확실히 해야겠습니다. 예술을 창작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위치에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하는 위치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존재할 수 있음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 속에 있을 수 있음으로 해서, 이 평정 속에서, 그는 예술을 창작해 내고 이 기쁨을 남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본성을 직접적으로 밝혀내는 것입니다.

예술을 창조하는 기술은 우리의 모성적인 부분으로부터 표현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창작물은 오감 너머로 우리를 데려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물질과 생각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어야 합니다. 예술은 그런 식으로 관찰자에게 접촉하는 것들을 담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른 것과 만나게 하도록 하려면 관찰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디서 정확하게 멈춰야 할지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서 멈춰야 할지 무엇을 놓지 말아야 할지 정말로 안다면 예술가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사이에 교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찰자는 그것에 참여하도록,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회화, 음악, 건축, 시, 춤의 본성입니다. 이러한 교감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예술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나 이미지가 너무 많거나, 작품이 너무 뻑뻑히 차 있다면 관찰자는 창조적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작품에는 여백이 필요합니다. 이 여백은 ‘예술가로서’의 예술가가 부재할 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술가가 자신을 작품 속에 밀어 넣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술이 아니라 자기표현의 단편으로 변하고, 비평가들의 토론에나 적당한 것으로 변하기 일쑤입니다. 쓰거나 그리는 사람이 없을 때 저절로 표현의 경제성이 생겨납니다. 하이쿠 몇 줄에 담긴 몇 개의 이미지가 어떻게 독자의 감정의 모든 영역을 건드릴 수 있는지 보십시오. 이것이 한 가지 예입니다.

연극을 예로 든다면, 배우가 어디서 멈춰야 그렇게 관객과 교감할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은 당신이 어떤 극을 하는가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배우는 청중과 함께 가야 합니다. 배우가 자신의 개성이나 기술로 청중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은 배우의 고도의 기술 영역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가 너무 적게 자극한다면, 그의 역할은 맛있는 음식처럼 단조로워집니다. 너무 많이 자극하면 청중이 무감각해질 것입니다. 배우는 청중들이 창조적이 될 수 있고 연극을 완성시킬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극을 완성하는 데에서 함께 창조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중의 일원은 소극적-적극적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는 듣고 동시에 의도적으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완성시킵니다. 예술은 표현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지 않음으로요...?

그렇습니다, ‘나’로부터의 개입이 없을 때 표현의 경제성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표현의 경제성 역시 개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자의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개입하지 않는 것이 개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행복입니까?

당신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 당신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 당신은 행복의 상태를 창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행복할 때에는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순간에는 행복을 아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영광, 온전함, 당신의 보편성 속에 있습니다. 행복에는 원인이 없습니다. 당신은 행복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사한 차, 아름다운 여자, 많은 돈, 좋은 집, 좋은 직업 등. 하지만 잘 살펴보면 당신이 정말로 행복 속에 있을 때는 행복한 사람도 없고 행복한 원인도 없으며 그냥 행복만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진정한 본성입니다. 당신의 본성인 행복, 그 자체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알든 모르든 당신이 어떤 원인을 투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욕망이 일상 중에 생겨나 끊임없이 저를 흥분하게 만듭니다. 이런 욕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정말로 깊이 일상에서 자기 행동의 동기를 들여다본다면, 그것들이 일반적으로 “나라는 개념”, 그 개인의 생존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가 느껴진다면, 완전히 이 욕구를 따르십시오. 근본적으로, 모든 욕망은 단 하나의 근원적 욕망으로 향합니다. 바로 욕망없음, 욕망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려는 욕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욕망을 따라가야 합니다. 나무 그늘을 따라가야 나무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종류의 욕망들을 소멸시킬 수 있나요? 또는 그것은 한 가지 욕망인가요?

욕망은 당신이 가장 갈망하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자아가 되려는 것은 자아로부터 옵니다. 욕망을 따라가면, 흩어졌던 에너지가 모이는 일종의 에너지 재구성 현상이 일어납니다. “너는 이래야만 한다, 너는 저래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런 것 또는 저런 것은 경험, 더 깊은 경험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거친 몸’)이라고 부르는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사랑하던 사람이 죽으면 그 슬픔과 상실감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람은 죽기 전에 반드시 신체-정신 개념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일상에서 그 신체-정신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것에서 벗어나기란 지극히 어렵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은 방해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가족과 친구들이 그 사람을 개별성 속에 묶어두고는 임종하는 사람이 그냥 가게 두지

1) ‘거친 몸’ sthula deha,粗大身: 인도 요가 철학에서, 골수(혹은 뇌수), 뼈, 지방, 살, 피, 살갗, 정精 (semen)의 일곱 가지 기질基質(dhatus)과 발, 다리, 가슴, 어깨, 등[背], 머리 등의 신체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나’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갇혀 있어 (사람들의) 첫째가는, 그리고 가장 오래 가는 애착의 대상이 되며 (오관으로) 직접 지각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대별되는 개념으로 미묘한 몸sukshma deha,微細身이 있다.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거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가족은 자주 장애물이 됩니다.

이런 대답에서 가끔은, 어떤 질문이 떠오르는데 완전하지 못해서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뭔가 말해 주실 수 있나요?

질문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고요하게 있으세요, 고요함 속에서 질문은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분명한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 중요한가요?

네. 하지만 답을 기대하지는 마세요. 질문을 계속 품고 있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답을 향해 열릴 것입니다. 언어로 된 대답은 그저 하나의 제안일 뿐입니다. 형태를 갖춘 답은 결코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수준 있는 것은 침묵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것은 자각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해될 것입니다. 드러난 것은 질문이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답이 될 것입니다. 완전히 이 ‘형태의 부재’ 속에 사십시오. 마음의 수준에서 우리는 상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징이 의미하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는 느낌 속에 있어야 합니다만 결론을 내려고 밀어붙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질문을 기억이나 과거를 통해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을 건드리거나 강제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질문을 품고 살아간다면, 마치 어린이처럼 어느 날 자신의 비밀을 들려줄 것입니다.

마음의 작용에 근거한 답과 침묵으로부터 오는 답을 구분하려면 무엇이 도움 될까요?

마음으로부터 온 이해는 여전히 갈등 속에 있습니다. 침묵으로부터 온 이해는 침묵 속에서 얻은 자신에 대한 앎으로 되돌아갑니다.

듣는 데 있어 어떤 바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해결책은 사실에 있고 대답도 사실 속에 있습니다.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신이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실을 왜곡 없이 받아들일 때 진실이 드러납니다. 진실은 보편적인 느낌이며 당신이 받아들일 때 나타납니다. 마음은 그것이 당신의 전체성, 보편성에 뿌리박을 때에만 깨닫힐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단편적으로 기능합니다. 당신은 아는 자도 없고, 편견도 없으며 단지 앎만이 존재하는 당신의 전체성으로부터 온 사실만을 진실로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자아가 나타나서 전체성에 질문을 하고는 당신을 의심 속에 던져 넣습니다. 그 덫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의심, 어떤 회의주의가 사람을 신념 속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회의주의는 기대입니다. 어떻게 결과를 투사하면서 이해에 이를 수 있나요? 의심 속에서 당신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의 신념체계에 빠졌다가는 다른 것으로 가는 것은 빠른 해결책을 찾는 게으른 마음 때문입니다. 회의주의가 아니라 계속 질문하는 마음만이 유일하게 필요한 도구일 것입니다.

많은 학파와 가르침들은 우리가 동료 인간을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해야 한다’는 것이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는 느낌 속에 있어야 합니다만,
결론을 내려고 밀어붙여서는 안됩니다.
드러난 것은 질문이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답이 될 것입니다.

평게 생각하시나요?

‘해야 한다’는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삶이 도움을 요청한다면, 도우세요. 하지만 ‘반드시 돕는 자’, 전문적으로 돕는 자가 되진 마세요.

자발적으로 돕는 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해야 한다’가 유용하지 않을까요?

‘해야 한다’는 당신을 아둔하고 바보 같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해야 한다’에서 벗어나세요. 아이가 넘어졌을 때 당신은 ‘일으켜 세워 줘야 할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합니다. 목마를 때, 당신은 그냥 물을 마십니다. 아무 문제 없는 삶에 문제를 만들지 마세요.

종종 도움은 심리적인 비용을 수반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고통 받습니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누가 고통 받습니까? 그 ‘누구’를 찾아보세요. 이 ‘나’는 누구입니까? 대상만이 고통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통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통에 대한 자각입니다.

하지만 전 그 고통을 아는 자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군요. 아마 내일 아침에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삿상(satsang)²⁾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말해주셨으면
합니다.**

삿상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먼저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그것은 은총을 받은 사람 가까워서 그와 함께
동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받아들이는 정도에 달렸습니다. 마음의 수준에서, ‘나’의 수준에서는 결코 진정으로 그와 동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나는 원한다, 필요하다, 해야 한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결코 좋은 동반자가 될 수도, 그런 사람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동반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스스로를 스승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줍니다. 그는 자신을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당신은 무입니다’라고 말하며 당신 안에 있는 무를 일깨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벽한 동반함입니다.

**스승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럼 스승
은 제자에게 어떤 희망이나 기대도 가지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스승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삶이 요구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는 어떤 결과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히 현재에 있습니다.

2) 삿상(Satsanga, Satsangam, Satsang)은 인도 철학에서 (1) ‘최고의 진실’과 동반함, (2) 구루를 동반함 (3) 진실을 듣고 말하고 거기에 동화된 사람과 동반함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역주

스승이 제자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 안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제자의 자질은 무엇입니까?

열의입니다. 그것은 그 자신, 개체성, 그리고 그가 아닌 것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깊은 갈망입니다. 그는 자유를 갈구할 정도로 무르익어야 합니다. 돈을 벌거나 연인을 기쁘게 하거나 자신을 과시하려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는지 생각해 보세요. 존경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쓰는지 보세요. 이 열의의 일부를 조금 떼어서 자기탐구에 나선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느낌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당신을 모든 기대 너머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삶에서 많은 것을 하기 바라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많은 것을 하려는 목적이 뭔가요? 많은 일을 하려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것의 난센스가 보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많은 것을 하고 싶어서 많은 것을 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병적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건 단지 탈출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깊이 몰입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루한 것입니다.

영적인 욕심이란 뭘까요? 더 많이 배우려고 하는 건가요?

이제 와서 어떤 것들은 영적이 아니라고 하려는 건가요? 모든 것은 영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찾는 것이 자신 안에 있다면 왜 그것을 잊어버린 걸까요? 왜 매일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다시 ‘왜’라고 물어보는군요! 영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영적입니다. 모든 것은 그 배후인 침묵을 드러내는 순간 영적으로 변합니다. 대상을 성스럽게 만드는 것은 침묵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앎을 드러내는 때에 그것은 성스럽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대상이기를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식의 표현이고, 확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둘이 아닙니다. 하나만 있습니다.(끝) 

- 이 글은 『The Unknown: dialogues in Delphi, Jean Klein, Third Millenium Publications』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진 클라인**(Jean Klein) | 프랑스 작가, 영적 스승, 아드바이타 베단타Advaita Vedanta(비이원주의) 사상가. "자발적인 내적 고요 상태에서만이 진정한 본성, 순수 의식 자체에 눈뜰 수 있다"라고 말했다. 체코 브르노Brno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빈과 베를린에서 음악과 의학을 공부했다. 1933년에 프랑스로 와서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레지스탕스에서 활동했다. 1950년경 인도로 떠나 3년 간 요가를 공부했다. 그때 아드바이타의 영적 스승을 만났고, 서양으로 돌아와 가르침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에서 영면에 들었다. 저서로는 『Be Who You Are』 『Ease of Being』 『Who Am I? The Sacred Quest』 외 다수가 있다.

역자 | **유래현** | 「지금여기」 번역위원, 서울대학교 작곡과 졸업 후 현재는 프랑스에 머물며 파리고 등사범음악원(ENMP)에서 영화음악, 오케스트레이션, 작곡을 공부중이다.